DAY 32 · 3부 뭘 할 수 있나

발표 준비, 어디까지 맡기고 어디부터 내가 할까? — 발표 준비

하루 5분 AI 수업 · 2026년 10월 8일

고칠 수 있는 조각은 맡기고, 내 이름이 붙는 조각은 내가 해.

한 줄로 말하면

1. 발표 준비는 한 덩어리가 아니야. **주제 좁히기·자료 모으기·슬라이드 만들기·연습** 같은 조각으로 쪼개져.

2. AI가 맡기 좋은 조각은 **밑그림과 손이 많이 가는 일**이야. 목차 후보 늘어놓기, 긴 자료 줄이기, 슬라이드 초안 잡기 같은 것.

3. 내가 해야 하는 조각은 **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** 생겨. 무엇을 말할지 정하기, 숫자 확인, 연습, 그리고 질문에 답하기.

그림 한 장으로

조각마다 맡길 수 있는 정도



위쪽은 고치면 되는 조각, 아래쪽은 내 이름이 붙는 조각이야.

핵심: 고칠 수 있는 조각은 맡기고, 내 이름이 붙는 조각은 내가 한다

실험 · 쪼개보기

'우리 반 분리수거' 5분 발표, 조각 나누기

AI가 도울 조각

밑그림과 손이 많이 가는 일

- **주제 좁히기**
- **목차 후보**
- **자료 요약**
- **슬라이드 초안**
- 대본 다듬기
- 발표 연습

여기 조각들은 틀려도 내가 고치면 되는 것들이야. 그래서 맡겨도 손해가 적어.

내가 할 조각

내 이름으로 남는 일

- **무엇을 말할지**
- **숫자 확인**
- **출처 적기**
- **발표 연습**
- **질문에 답하기**
- 슬라이드 초안

발표장에는 나 혼자 서 있어. 질문은 나한테 오고, 틀린 숫자도 내 이름으로 남아.

통째로 맡기면

쪼개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

- 통째로 맡김
- 문장은 근사함
- 내 말투 아님
- 출처가 없음
- 질문에 막힘

읽기엔 그럴듯한데 한 줄만 물어도 무너져. 내가 안 읽은 문장은 내가 설명할 수 없거든.

버튼을 눌러 조각을 나눠 봐. 켜진 조각과 꺼진 조각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면 기준이 보일 거야.

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· next-token.net/learn/day-32/

확인해보기

세 문제만 풀어 보자

Q1 AI에게 맡기기 좋은 조각은?

① 발표 연습
② 질문에 답하기
③ 목차 후보 늘어놓기
④ 친구 앞에서 말하기

Q2 발표를 통째로 맡기면 왜 위험할까?

① 글자가 작아져서
② 시간이 더 걸려서
③ 슬라이드가 느려져서
④ 내가 안 읽은 문장은 질문에 답할 수 없어서

Q3 초안을 받은 다음 반드시 할 일은?

① 숫자와 출처 확인하기
② 바로 출력하기
③ 글자 크기 키우기
④ 배경색 고르기

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

Q1

③

목차 후보나 자료 요약처럼 틀려도 내가 고치면 되는 조각이야. 여기서 시간을 벌어 연습에 쓰는 거지.

Q2

④

문장은 근사한데 한 줄만 물어도 무너져. 발표장에는 나 혼자 서 있고, 질문은 나한테 오거든.

Q3

①

틀린 숫자도 내 이름으로 남아. 숫자는 처음 발표한 곳에서, 인용은 원문에서 확인하고 출처를 적어 둬.

고칠 수 있는 조각은 맡기고.
내 이름이 붙는 조각은 내가 해.



내일은 아이디어 내기 — 많이 뽑아 놓고 고르는 쪽이 왜 더 나은지.